

한국수소연합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5.6.4. 한국수소연합 경영지원실 -

◇ 매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, 국내·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

I. 국내

□ 산업계

- **현대차·기아, 서울 유일 전기차 엑스포서 수소·전동화 기술 뽐내** ('25.6.2., 이데일리)
 - 현대차·기아가 'EV 트렌드 코리아 2025'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선보임
 - 수소전기차존에는 2018년 이후 7년만에 선보이는 완전 변경 수소 전기차 모델 '디 올 뉴 넥쏘'를 전시하고, 넥쏘의 주요 특징점에 대해 소개하는 공간을 마련 및 넥쏘에 탑재된 수소전기차 특화 정보 표시기능인 '루트 플래너'를 체험
- **두산, 1000km 달리는 수소버스 9월 출시** ('25.6.1., 전자신문)
 - 두산그룹 두산퓨얼셀 자회사 하이엑시움모터스는 수소 광역버스 (고상형) 인증을 완료하고, 9월 중 국내에 출시할 계획
 - 수소버스 주행 거리를 늘린 건 두산퓨얼셀이 개발한 국내 최대 용량의 수소버스 전용 200kW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 및 최적화된 시외 주행을 위해 SK온의 87kWh 리튬이온 배터리도 적용
- **포스코·삼성E&A 주도 '오만 수소 프로젝트' 2027년 최종 투자 결정** ('25.6.2., THE GURU)
 - 포스코홀딩스와 삼성E&A가 주도하는 오만 '두쿰 그린수소 플랜트' 사업이 2027년 최종 투자 결정(FID)을 거쳐 2030년부터 생산'
 - 이 사업은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두쿰 경제자유특구 인근에 5GW 규모 재생발전설비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2GW 규모 수전해 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

- KGM 광재선號, 2027년 11m급 '첫 수소버스' 출시... "수소車 합류"(25.6.2, EBN산업경제)
 -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GM의 상용차 전문 자회사 KGM커머셜은 2026년부터 수소 기반의 11m급 대형 시내버스(저상형)·광역버스(고상형)와 12m급 시내버스를 순차적으로 출시
 - 이와 함께 2026년 이동이 가능한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2028년에는 충전소도 마련한다는 구사
- 효성중공업, 서울시와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협력(25.5.31., 잡포스트)
 - 효성중공업이 서울에너지공사와 협력하여 서울을 수소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고 29일 밝힘
 - 효성중공업과 서울에너지공사는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및 안전기준 개발, 수소 충전설비 국산화 및 실증, 청정수소발전 공동사업 발굴 등을 함께 추진

□ 지자체

- 수소산업, 미래산업 육성·전략거점 만들기(25.6.1., 강원일보)
 - 동해시가 수소산업을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육성, 전략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
 -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기반시설(산업진흥센터, 안전성시험센터, 시스템실증센터)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

□ 기관

- 한전, 수소활용 SF6 분해센터 준공...세계 최초(25.6.1., 충청타임즈)
 - 한국전력이 수소활용 SF6 분해 및 무해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구축,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
 - 한전은 '수소활용 SF6 분해센터' 준공식을 갖고 한국서부발전, 국가철도공단, 경기도와 '수소 기반 국가 전력 및 철도 인프라 활용 협력' 업무협약

II. 해외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○ 일본 경제산업성(METI), 수소연료 보급 가속화 위한 보조금 제도 도입(Ministry of Economy, Trade and Industry, 2025.5.31)

- 일본 정부는 수소연료 활용 확산을 위한 '상업용 수소 차량 연료 보조금 제도'를 신설하여, '25년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임
- kg당 최대 700엔(약 4.83달러)까지 지원하며, 디젤 대비 높은 연료비로 인한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초기 보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임
- 일본 내 6개 행정구역* 중 5개 우선 지역의 수소충전소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며, 충전소 운영사업자에게 수소 구매비 일부를 보조하고, 이를 이용자 가격 인하로 환원되도록 유도함

* 도쿄, 가나가와, 후쿠시마, 아이치, 효고, 후쿠오카가 대상이며, 이 중 5개 우선 지역은 미공개 상태

** 일본 수소 상용차 연료 보조금 제도 개요

항목	주요내용
주관	일본 경제산업성(METI)
시행 시기	'25년 하반기 예정
주요 내용	- 수소연료 상업용 차량 대상 보조금 도입 - kg당 최대 700엔 지급 예정 - 충전소 운영사업자 대상 보조, 가격 인하 유도
기대 효과	- 수소차 운영비 절감 (최대 75%) - 상업용 수소차 보급 가속 - 민간 충전 인프라 투자 확대
연계 정책	수소기본 전략 개정안('23), 청정에너지 차량 확대 로드맵 등과 연계

※ 일본은 '40년까지 상용 수소차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며, 이번 보조금은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임. 대형 트럭 1회 충전에 최대 21,000엔(약 144달러)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, 도요타는 3세대 연료전지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

※ 본 제도는 수요자 직접 지원이 아닌, 충전소 운영사를 통한 간접 지원 구조로 설계돼 가격 인하 유도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됨

□ 글로벌 산업 동향

○ 호주 타즈매니아, 20억 달러 규모 녹색수소·메탄올 생산시설 착공 예정 (Herald Sun, 2025.6.1)

- 호주 타즈매니아 주정부는 벨 베이(Bell Bay)* 지역에 연간 30만 톤의 녹색 메탄올을 생산하는 청정수소 기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, '28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본격 착공에 돌입함
 - *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항만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으로, 본 프로젝트를 통해 약 300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됨
- 총 20억 달러(약 2.7조 원) 규모의 민간투자가 투입되며, 생산된 메탄올은 주로 해운 및 항공 부문에 공급되는 지속가능 연료(SAF)*로 활용될 예정임
 - * Sustainable Aviation Fuel, 식물성 원료나 폐기물 등에서 만든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
- 본 사업은 호주 연방정부와 타즈매니아 주정부가 승인한 국가 전략사업으로, ABEL Energy*가 주도하며, 녹색 메탄올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수출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
 - * 호주의 재생 에너지 기반 수소·e-메탄올 선박 연료 생산 기업
- 이번 프로젝트는 호주 정부의 'Hydrogen Headstart'*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추진 중이며, 향후 SAF·e-fuel** 등 수소 파생 연료 수출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
 - * 수소 생산 프로젝트 초기 수익성 지원을 위한 호주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
 - ** 재생에너지 전기로 만든 합성 연료 ex) e-디젤, e-가솔린, e-메탄올, e-케로신

